

지체의 말씀

불기 2563년 9월 / 통권 463호

법도의 가장 본말이 다스려온 나쁜한 노양구
악기만의 그 때에 들어보는 時問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시 이 선 문 료 각 심
是以禪門了却心^{하야}

頓 入 無 生 知 見 力 이로다
頓入無生知見力이로다

선문에서 마음을 깨달아
문득 무생법인에 들어가 지혜의 힘을 얻는다.

대 장 부 병 혜 검
大丈夫秉慧劍^{하니}

반 야 봉 혜 금 강焰 이로다.
般若鋒兮金剛焰이로다.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잡으니
반야의 칼날이요, 금강의 불꽃이로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나복이의 효행 / 윤성스님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 10

알림마당 · 13

대광사 9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9월 행사계획

어린이법회 9월 활동

추석 합동제사 안내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나복이의 효행

윤성스님 / 대광사 회주

왕사성의 부상 장자가 늦은 나이에 얻은 나복이라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아직 젊은 부인과 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웃음을 머금어서 인정을 거스르지 않았고 항상 육바라미를 행하여 가난한 이웃을 돌보았다.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께 자주 나아가 가르치심을 듣고 고요한 곳에 가만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어 삼매에 들기를 즐겼으며 병든 이 외로운 이를 보살피며 부지런히 덕행을 닦았다. 그러나 나이가 많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정을 제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므로 재산을 삼등분해서 일부는 어머님께 드릴테니 아버님을 위한 재를 올려 주시고 일부는 가정을 지키시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일부는 제가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여 재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은 약속대로 재산을 많이 불려서 떠난지 삼년이 지난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백승재를 울리며 아버지를 위해 정성 다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재에 한 번 참석 못한 죄송함을 연신 참배하며 돌아오고 있었다.

“앞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고 뒤에는 스님네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예배하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이웃들에게

“아버님을 위한 오백승재를 매일 울리고 삼보를 공양하고 방생의 덕을 쌓으신 어머니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고 말하자 이웃들이

“너희 어머니는 재를 울리지도 않았고 방생도 하지 않았으며 매일 짐승들을 잡고 잔치를 벌려 살생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웃의 말에 청제부인은 아들에게 맹세했다.

“내가 만약 재를 지내지 않고 살생하고 잔치를 열며 방탕하게 지냈다면 칠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 아비 대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칠일 뒤에 갑자기 중병에 걸려 그만 돌아가셨다. 그래도 나복이는 어머니 말을 믿어 천상에 태어나셨을 것을 굳게 믿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오직 홀로 남은 그는 기사굴산에 이르러 세존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사 청하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복아, 잘 왔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출가하여 수행의 덕을 쌓는 것은 보석으로 팔만개의 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나으며, 살아 있는 부모에겐 백년 복락을 드리게 되고 조상에겐 7대를 정토에 나게 하는 복을 드리게 되느니라.”

세존께서 아난에게 나복의 머리를 깎게 하시고 이마를 만져 수기

하시며 이름을 ‘대목건련’이라 하셨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사이에 접어 고요한 곳에 가부좌로 앉아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33천을 관하여 화락천에 이르니 아버지는 하늘에 있으나 어머니는 볼 수 없었다.

목련이 세존께 사죄었다.

“어머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매일 5백 승재를 올리시고 방생의 덕을 쌓으시고 가난한 이웃에 보시하여 공덕을 지으셨는데 돌아가신 뒤 화락천의 복을 누리시지 못함은 무슨 일이며 어디에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가 세상에 있을 때 삼보를 믿지 않고, 살생을 즐기고 너에게 거짓말 하고, 방종한 업보로 지옥에 갔느니라.”

세존의 가사를 받아 입고, 손에 세존의 석장을 쥐고, 지옥 문 앞에 이르러 석장을 흔들자 지옥문이 저절로 열렸다. 어머니를 뵈고 갈증을 식히시라고 물을 드렸지만 물이 불이 되어 더 괴롭혔다. 죄업이 지중해서 그랬다. - 중략 -

부처님께 애걸하여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을 얻었다.

백명의 스님들을 모셔 백가지 공양을 올려서 공양 공덕으로 스님들 높으신 덕행으로 어머니를 끝내 지옥에서 벗어나 화락천의 복을 누리게 해 드렸다. -목련경에서-

백명 스님들 이름을 빌어 ‘백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날이다 혹 우란분절이라 하기도 한다. 목련의 설화를 따라 많은 절에서 천도재를 지낸다. 목련경은 부모 은중경과 더불어 효행을 강조하고 업보를 중시하는 경전이다



부처님의 말씀

6. 초전법륜과 전법

3) 제자들의 귀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쫘라뻘타가__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물론 그렇지 않다. 부처님 당시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알려진 쫘라뻘타가 (‘주리반탁’이라고도 함)라는 제자가 승단에 들어왔다. 그는 너무나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간단하게 가르침을 주어도 단 한마디도 외우지 못하였다. 결국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승단에서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워 슬피 우는 쫘라뻘타가를 당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때를 없애라“라는 말만을 깊이 생각하라.”

걸레를 들고 늘 쓸고 닦으며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관장 한 쫘라뻘타가는 남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였다.

이 교화 이야기는 진리를 깨우치는 데는 머리의 좋고 나쁨이 중요한지 않으며,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과 실천 수행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믿음과 정진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방법임을 부처님은 보여주신 것이다.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말라__

앙굴리말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오로지 궁극적 진리를 얻고자 노력했던 큰 스승 아내의 모함으로 스스로에게서 무시무시한 가르침을 받는다.

‘지금으로부터 사람들 백명을 죽여서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대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를수 있다.’ 앙굴리말라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스승의 말에 이내 칼을 들고 거리고 나섰으며 결국 99명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다, 거기 마지막 백번째 희생자로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는 순간 부처님이 그곳으로 나아가서 앙굴리말라의 끔찍한 살인을 막았다. 희대의 살인마를 잡기 위해 당시 왕까지 군대를 동원할 정도였지만 부처님을 평온하시고 담담한 모습으로 앙굴리말라의 손에서 흉기를 내려놓게 하였으며 그를 출가제자로 삼아 진리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앙굴리말라는 후에 탁발을 하러 나가서 사마들의 모진 비난과 메질을 받아야만 했지만 자신의 죄업에 대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완전한 참회를 통해 새롭게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아무도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귀한 목숨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사례이다.

분쟁의 조정__

부처님의 고향인 까뻬라국과 혈연관계인 풀리아국은 로히



니 강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양쪽 사람들은 물을 좀 더 확보하려고 강물에 대한 소유권을 서로 주장했다. 처음에는 몇사람의 입씨름에서 비롯된 싸움이 급기야 군대까지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이소식을 접한 부처님은 서둘러 분쟁지역으로 달려가셨다. 그리고 두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물으셨다.

“이 강물과 사람중에서 어느 쪽이 더 소중한니까?”

“물보다 사람이 훨씬 소중한니다.”

“그런데도 물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버리겠단 말입니까? 말라버린 로히니 강바닥을 피로 채우겠단 말입니까? 그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부디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원한을 벗고 고뇌도 벗고 탐욕도 벗어놓고 살아가십시오. 이세상에서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중재로 싸움은 종식되었다. 하마터면 피로 물들 뻔한 로히니 강은 다시 두 종족의 소중한 식수원이 되었다. 부처님은 출가자 이므로 세속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난분이셨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먼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현명하게 중재를 하였고, 이런 부처님의 교화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길을 끌수가 있었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8. 나룻배의 경

1. [세존] “누군가에게 배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마치 하늘사람이 제석전을 섬기듯, 그를 대하라. 많이 배운 사람은 섬김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진리를 밝혀 보인다.
2. 현명한 님은 그것을 추구해서 주의를 기울여,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여 게으르지 않는다면, 식견이 있는 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된다.
3.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질투심이 있는, 소인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까이 섬긴다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4. 마치 사람이 물이 넘치고, 홍수가 저서, 물결이 거센 강에 빠지면,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 이가 어찌 남을 건네 줄 수 있겠는가.



5.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서 그 의미를 경청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모르고 의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6. 현명한 자가 튼튼한 나룻배에 올라서 노와 키를 장착하고, 그 도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잘 다룬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건네줄 수 있는 것과 같이,
7. 지혜에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워 동요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다.
8. 그러므로 참으로 현명하고 많이 배운 참사람과 가까이 하라. 의미를 알고 길을 추구하면서 가르침을 인식하면, 그는 안락을 얻으리라.

9. 계행이란 무엇인가의 경

1. [세존] “어떠한 계행이 있고, 어떠한 실천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닦아야만, 사람이 바르게 정립되고 또 으뜸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2. 순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바른 시간에 스승을 만나 잘 설해지고 명료하게 발음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른 순서에 지성으로 들어라.



3.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라. 목표와 가르침과 자제와 청정한 삶을 새기고 또한 이들을 추구하라.
4. 가르침을 즐기고 가르침을 기뻐하며, 가르침에 입각하고, 가르침에 대한 언명을 알며, 가르침을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훌륭하게 설해진 진실에 따라 생활하라.
5. 웃음, 농담, 비탄, 성냄, 허위, 사기, 탐욕, 오만, 격분, 폭언, 오염, 탐닉을 버리고 광기를 떠나 안정시켜 행동하라.
6. 훌륭히 설해진 것은 잘 분별된 것의 핵심이고, 들려지고 알려진 것은 삼매의 핵심이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방일하면 지혜도 학식도 늘지 않는다.
7. 고귀한 님께서 가르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뛰어나다. 평안과 온유와 명상속에 지내며 그들은 학식과 지혜의 핵심에 도달한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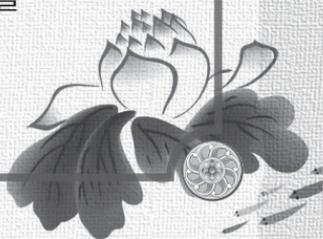
대광사 9월 법회 및 행사

- ◆ 9월 01일 초하루기도 회향
- ◆ 9월 03일 월산스님 다례제
- ◆ 9월 10일 불대2학기 개강 (오전 10시 불대강의실)
- ◆ 9월 13일 추석합동 다례제 (오전 7시 설법전)
- ◆ 9월 22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 6시 30분 대웅전)
- ◆ 9월 26일 천일기도 300일 입재
- ◆ 9월 29일 음력 9월 초하루 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추석 합동제사

- 일시 : 2019년 9월 13일 금요일
- 오전 7시 대광사 설법전
- 동참금 : 영가1위당 2만원
- 문의 및 접수 : ☎ 545-9595





고맙습니다

대광 후원회

(7. 20 ~ 8. 19)

수연화 30,000	이경순 50,000	박은숙 30,000	강 란 10,000
정진이 10,000	박외순 20,000	김외숙 30,000	유미란 50,000
김경남 20,000	유봉악 10,000	박은경 30,000	후원회 100,000
홍승운 20,000	박재현 50,000	이경오 30,000	김병문 20,000
(주)카텍 300,000	우명희 20,000	강보경 30,000	찬불단 50,000
오현우 30,000	김지현 100,000	전홍준 30,000	공상섭 30,000
김영애 30,000	이미정 50,000	홍예현 50,000	조형식 30,000
박미애 10,000	최진환 10,000	이금재 30,000	불대18기일동 100,000
원광한의원 100,000	이현실 20,000	백옥이 50,000	서경스님 15,000
혜연심 30,000	이경화 10,000	황분자 3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백중기도 공양자

전용섭 김정애 이시형 성재호 김형국 이용원 한지민 변창인
 이상원 황상선 심재범 이정대 정윤규 김정원 구동채 김귀애
 이현실 김진산 이해경 윤성문 이윤우 공상섭 윤순현 조형식(초)
 양조은 안종부 박외순 이미애 성재호 김향자 박건식 선영수
 김형국 (영)이정문

*백중기도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칠석기도 공양자

김민정 이영호 강상호

♥ 공승재

*49일동안 기도하신 스님들을 위한
 신도님들의 마음 모두 감사합니다.

♥ 지혜의말씀

주정수 (영)청람심

♥ 도솔암 참배 공양자

김밥공양 / 법안성보살님. 윤순현 보살님



9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1. 2019년 대광유치원 3주기 유치원 평가

- 일시 : 2019년 9월 9일(월)
- 내용 : 유치원 교육과정, 환경, 안전평가

2. 2019. 대광유치원 가족운동회

- 일시 : 2019. 9. 29(일) 오전 9시 30분~ 12시
- 대상 : 원아, 학부모
- 장소 : 진해 구민 실내체육관

9월 어린이법회 활동

1. 2학기 개학법회

- 일시 : 2019년 8월 31일(토)

2. 나란다 축제

- 일시 : 2019년 9월 7일(토)
- 장소 : 서울 동국대학교 일대
- 내용 : 초등학생 불교교리퀴즈대회 및 체험 활동



佛紀 2564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살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제19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0년 3월 3일~3월 25일	2020. 3. 26(화)~12. 3(화)
수 계 일	2020년 3월 28일	(1년 과정 - 2학기제)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접수기간 : 2019년 8월 1일부터 ~ 2020년 2월 말까지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강의내용

의 식	예불 및 의식(찬불가)
예 절	사찰예절, 신도오계
교 리	부처님의 생애, 사성제, 팔정도 등
불교문화	법당, 탑, 탕화, 벽화, 문화, 성지순례
신 행	참회와 기도, 사경 보시와 자비실천, 수련회
불교역사	인도·중국·한국 불교사, 동남아 불교사
불교사상	종관, 유식, 화엄, 선사상 등
경 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
특 강	사찰음식, 다도, 불교 사회복지 실천, 수련회, 성지순례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